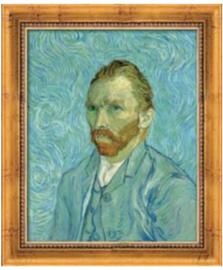


“쉬운 설명으로 그림 감상 재미 선물할 것”



광주시립미술관 토요강좌 ‘그림 읽어주는 남자’ 이창용 강사

지난 6월말 광주시립미술관, 쏟아지는 빛속에도 ‘그림 읽어주는 남자’를 만나러 온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강의실은 200여명의 수강생들로 북적였다.

광주시립미술관 토요문화 강좌 ‘그림 읽어주는 남자’의 유럽 미술 기행’을 진행하는 이창용(아트스토리 105 대표)씨가 이날 소개한 화가는 클로드 모네와 에두아르 마네. 그의 강의는 쉽고 친절하다. 철저한 자료가 뒷받침 돼 흥미롭게 들을 수 있어 그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들 에겐 안성맞춤인 강좌다. 지난 4월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 강의했던 이씨는 오는 25일에는 스페인 대표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10월에는 장 프랑수아 밀레를 소개한다.

8년간 오르세미술관 등서 도슨트 활동
철저한 자료 준비·명쾌한 해설로
‘그림 초보’에 안성맞춤 강좌
25일 벨라스케스·10월 27일 밀레

“우리가 준비한 만큼 그림은 감동을 선물
미술·클래식 결들인 아트콘서트 만들 것”

8년 동안 바티칸박물관, 오르세미술관 등 유럽의 미술관에서 현지 가이드와 도슨트로 활동해온 이씨는 대학생이던 2004년 처음 유럽 땅을 밟았다.

“대학에서 로마사를 전공했는데 막연히 로마에서 살아보고 싶어 떠났어요. 어학 연수를 하며 용돈이나 벌어보자는 생각에 바티칸 박물관에서 여행자들에게 그림과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는 도슨트를 처음 해보게 됐죠. 2년간 바티칸 박물관에서 활동한 후 한국에 들어와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안정적인 직장을 잡았지만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한 그리움에 다시 미술의 본고장인 파리에서 도슨트 일에 도전해 보자 마음 먹고 프랑스로 떠났죠.”

2012년 다시 유럽으로 떠난 그는 지난 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유럽에서 그림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해오며 많은 준비를 해왔고, 이제는 한국에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림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고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들에게 마치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주며 어린이에게 책에 대한 재미를

같이 해주는 것처럼 그림을 감상하는 재미를 선물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림 읽어주는 남자’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의 강의를 듣고 있으면 자료 준비가 철저하다는 생각이 든다. 강의 중 언급된 그림, 사진, 음악 등이 궁극적으로 그림을 바로 보여준다. 보통 2시간 짜리 강의를 새로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은 2달 정도다.

“강의 준비가 시작되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국회도서관에 자리를 잡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모든 책을 쌓아두고 정보 수집과 강의 컨셉을 정하는 데 대략 1달 정도가 걸려요. 미술강의라 하면 그림 자료들을 PPT로 준비해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강의 대본 초본 완성과 관계 교수님들을 통한 감수, 끝으로 수정과 대본 숙지까지 진행하면 두 달 정도가 걸려요. 이렇게 완성된 강의는 반복되면서 약간의 수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첫 완성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한번 만들어지면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음 제작 당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편입니다.”

이씨는 이번에도 처음 시작하는 광주시립

미술관 강의에서 모두 네 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제 강의 주제 중 관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고흐이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화가가 밀레라서 두 화가를 선택했어요. 또 미술관 측에서 미술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강의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현대 미술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네와, 인상파를 탄생시킨 모네를 추가했죠. 인기 관광지인 스페인에 멋진 자연경관과 건축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 역사의 최고의 화가도 접해보면 어떨까 싶어 벨라스케스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외국 유명 미술관 등에서 만난 한국인을 비롯한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며 아쉬움도 많았던 그는 미술관 나들이에 부담을 갖지 말라고 말한다.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사람들이 너무나 대단하고 중요한 곳에 찾아와 그곳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조금만 여유를 갖고 미리 준비해 왔다면 충분히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모나리자’만을 위한 곳이 아님에도 30분만에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만 찍고 나가는 관광객들을 보면, 극장에서 영

문화전당, 영화 촬영지 각광

‘공작’ ‘상류사회’ 잇단 개봉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문화전당을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들이 8월 잇따라 개봉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전당이 등장한 영화로 지난 8일 개봉한 첩보극 ‘공작’이 인기몰이를 중이다. 영화 속에서는 가수 이효리와 북한 무용수 조영애가 함께 광고를 찍는 촬영장으로 문화전당의 극장1 ‘빅도어(Big Door)’가 등장한다. 이 장면은 지난 2005년 실제 휴대전화 광고 촬영을 재구성한 것으로 남북 문화교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이효리가 특별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영화 촬영 전부터 화제가 됐다. 빅도어는 국내 최대 ‘블랙박스’ 형태의 공연장으로 공연 성격에 따라 모양이 바뀐다. ‘범죄와의 전쟁’, ‘군도’ 등을 연출한 윤종빈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공작’은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핵의 실체를 파헤치던 안기부 스파이가 남북 고위층의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실화극이다. 15일 현



영화 ‘상류사회’ 한창면

재 1000만 관객을 넘긴 ‘신과함께-인과연’을 제치고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문화전당 건물들을 배경으로 담은 영화 ‘상류사회’도 오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ACC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아시아문화광장 등이 등장한다. 박해일, 수애, 이진욱이 출연한 이 영화는 육망으로 얼룩진 부부가 아름답고도 추악한 상류사회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미술관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지난 1월에 5일에 걸쳐 문화전당 곳곳이 촬영 무대가 됐다는 이야기를 그린 실화극이다. 15일 현



문화전당 예술극장 로비에서 영화 ‘상류사회’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슈하이비미디어코프 제공>

뜨락마녀와 놀자

광주여성재단 북카페서 이미희전...31일 공예체험

도자기공예 작가 이미희씨가 광주여성재단 북카페에서 ‘뜨락마녀와 놀자’를 주제로 10월10일까지 전시회를 연다.

광주여성재단의 ‘2018년 작은전시수공예작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흙을 이용해 만든 그릇, 조명제품, 인테리어 소품 등 80여 개 작품(사진)을 선보인다.

오는 31일과 9월20일에는 이 작가와 함께하는 무료 공예체험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도자기공예에 관한 설명을 듣고 벽걸이화기나 모빌 등을 만들게 된다. 31일 체험은 오는 28일까지 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70-0533.



www.gjwf.or.kr)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70-0533.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 (금, 토, 공휴일 전일)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